

‘세계체계관점’과의 비교를 통해 바라본 메가아시아 개념의 특징: 이론적 체계와 방법론적 도구의 공존*

유성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본 연구는 메가아시아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메가아시아 개념은 새로운 아시아를 구상하는 하나의 이론적 틀로서 최근 여러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다. 무엇보다 메가아시아가 기존의 아시아 담론들과 차별성을 가지는 동시에, 이론적 혹은 방법론적 강점들을 가진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사용될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메가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시의적절성에도 불구하고, 메가아시아를 둘러싼 여러 의문점들이 생기는데, 본 연구는 메가아시아가 어떤 정체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메가아시아가 하나의 이론적 체계이자 방법론적 도구임을 가정 한 뒤, 이를 위해 이전에 유사한 이론적-방법론적 시도를 한 이매뉴얼 월러스틴의 세계체계분석을 가져와 그 의미를 탐구하였다. 월러스틴의 세계체계분석을 통해 연구자는 메가아시아가 하나의 이론적 체계이자 방법론적 도구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월러스틴의 세계체계분석과 메가아시아가 동일한 이론적-방법론적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메가아시아의 정체성을 밝히는 시론적 연구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주제어 메가아시아, 이론적 체계, 방법론적 도구, 이매뉴얼 월러스틴, 근대세계체계

“다른 것을 통해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을 통해 파악하여야 한다.”

(스피노자 『윤리학 1』 제2공리)

I. 서론: 메가아시아란 무엇인가?

1970년대 중반 덩샤오핑과 간디의 만남에서 논의된 아시아의 세기(the Asian Century)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아시아가 가지는 무한한 잠재력에 세계

* 본 논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생산적인 조언을 해 주신 리뷰어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많은 유·무형의 도움과 조언을 주신 편집위원 및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6A 3A02065553).

가 주목하고 있다(임현진 2016: 5). 임현진 외(2021: 25)가 지적했듯, “아시아·태평양 권은 전 세계 인구의 40%, 지표 면적의 32%, 국민총생산의 55%, 에너지 소비의 49%, 교역의 65%”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적 협의체인 APEC, ASEAN, RCEP 등은 규모 면에서 NAFTA나 EU를 능가할 정도다. 이처럼 아시아가 세계역사의 중심부로 다시금 등장하게 되자, 아시아를 이해하려는 새로운 논의들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했다(e.g., Arrighi, 2007; Chang, 2014; Duara, 2014; Frey and Spakowski, 2016; Funabashi, 1993; Mahbubani, 2008; Mulakala, 2021; Saaler and Szpilman, 2011).¹ 본 연구는 이 가운데 ‘메가아시아’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메가아시아는 탈냉전 이후 세계질서의 변동, 아시아의 지정학적 동학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하나의 초국가적 단위체로서의 아시아를 분석하고자 만들어진 개념어인 동시에 기존의 아시아를 새롭게 인식하려는 인식론적 방법이다. 더불어 메가아시아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여러 아시아의 물질·이데올로기적 교류 및 네트워크들을 포함하는 역사적 접근법이기도 하다.

메가아시아가 초국가적인 지역단위체라고 할 때,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지역’의 의미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어샤이머(Mearsheimer, 2001)가 지역영토(regional territoriality)라는 개념을 선보인 이래, 많은 국제관계 연구자들이 지역을 하나의 분석단위로 간주하고, 이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국가기반의 연구들의 경우, 종종 지역 공통성(혹은 정체성)을 확인하거나 지역 기반의 헤게모니 투쟁(예를 들면 1945년부터 1990년 사이에 일어난 미-소 간 지정학적 갈등)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지역 단위에서 확인되는 동학을 살펴보는 새로운 분석단위가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런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미어샤이머는 특정 지역 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들)를 가리켜 “지역 패권(regional hegemon)”을 가진 나라라고 정의내리기도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부잔과 와이버(Buzan and Waever, 2003)은 지역단위에서 형성된 안보 역학(security dynamics)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지

¹ 비록 이런 아시아의 세기가 어느 정도는 현재의 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발전상까지도 함께 포괄한다는 점에서 미래예측일 수 있지만(Frey and Spakowski, 2016: 209-210), 아시아가 현재 그리고 향후 지구의 향방을 좌우할 대륙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역단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마이어스(Myers, 1991)는 지역패권을 가진 국가들의 활동에 관심을 보였다. 마이어스에 따르면, 20세기 후반부터 세계 초강대국들의 영향력이 줄어든 대신, 지역 헤게모니 세력들(예를 들면 중동의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지역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시아의 인도, 동남아시아의 중국, 남미의 브라질)이 크게 두각을 드러냈다고 해석했다. 여기에 더해 프라이스(Prys, 2010)는 지역 패권국들이 행사하는 여러 가지 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패권국들은 때로는 지역적 차원에서 협동적 상호작용을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협조적 상호작용을 보이기도 한다고 프라이스는 지적했다. 프라이스의 관점을 보다 발전시킨 데스트라디(Destradi, 2010)는 지역 패권국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3가지(“강압적 방식”, “이익-협동적 방식”, 그리고 “공통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를 제시했다. 이들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적어도 이론적으로—초국가적인 단위로서의 지역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연구단위로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아시아지역을 하나의 공동체적 단위로 인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기도 했다. 예컨대, 아리기(Giovanni Arrighi), 하마시타(Takeshi Hamashita), 셸던(Mark Selden)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장기간 형성되어 온 역내 무역 네트워크를 강조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이야말로 하나의 “세계지역(world region)”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Arrighi, Hamashita, and Selden, 2003: 5). 이런 맥락에서 커밍스(Cumings, 1984)는 (동북)아시아를 분석하는 데 있어 국가기반의 접근은 부적절한데, 그것은 지역 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통일성과 지역 내 하부단위들 사이의 통합성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시아를 하나의 공통된 지역단위이자 분석단위로 해석할 수 있다는 논의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예컨대 프레이(Marc Frey)와 스파코우스키(Nicola Spakowski)는 아시아를 하나의 전체 또는 지역으로 간주하고, 통합된 아시아주의 논의를 통해 아시아 각국이 가지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Frey and Spakowski, 2016). 사알러(Sven Saaler)와 스피لمان(Christopher W. A. Szpilman)은 아시아의 정체성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만들어지고 발전했는지를 설명하면서, ‘범아시아주의(Pan-Asianism)’를 주창했는데, 이들에 따르면 범아시아주의는 아시아의 공통성·보편성·통합적 담론을 대표하는 것이었다(Saaler and Szpilman, 2011: 2). 뿐만 아니라 후나바시 요이치(Funabashi, 1993)와 장경섭(Zhang, 2014)은 20세기 후반 아

시아의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아시아화(Asianization)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아시아주의를 유럽의 식민지 경험(식민주의)과 결부시키면서, 어떻게 아시아주의가 아시아 내에서 자생·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관련해 두아라(Prasenjit Duara, 2010)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주의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유럽의 식민지 팽창 이전 아시아가 어떻게 문화적·상업적으로 연결되었는지에 주목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천팡싱(Chen, 2010)은 탈제국주의 이론을 제안하면서, 식민지 시기 유럽의 영향력을 지방화하는 한편, 아시아를 통해 비위계적인 세계화(non-hierarchical globalism)를 지향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철학적 측면에서 자오팅양(2022)은 중국 고대에서 이해된 “천하”라는 독특한 거시적 세계관이 어떻게 서구의 민족국가체계-제국주의-패권 경쟁 모델에 대한 하나의 대안일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시아 내부에서 형성된 중요한 천하개념의 주요 가치들—‘공존질서’, ‘공공성’, ‘포용성’—이야말로 새로운 국제질서의 롤모델일 수 있다.

아시아를 하나의 공통된 혹은 연결된 지역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인식론적 조류 하에서, 신범식(2021: 15)은 메가아시아를 아시아 내 다양한 지역들이 만들어 낸 지구적 혹은 지역적 동학이자, 아시아 각 지역들이 서로 연결되어진 거대한 네트워크라 칭했고, 윤종석 외(2021: 61)는 메가아시아를 아시아 내 여러 지역 간의 상호작용 네트워크로 이해했다.

물론 이들이 주장하는 메가아시아는 개념적으로 기존의 국제관계학자들이 제시한 지역 개념이나 기존의 아시아담론들과 차이가 있다. 우선 국제관계학자들이 지칭하는 ‘지역’단위와 달리, 메가아시아는 메타담론적 성격을 띤다. 메타담론은 어떤(새로운) 대상 혹은 개념영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대상이나 개념을 재고찰하고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메타담론은 기존 담론에 대한 담론인 셈이다. 메가아시아를 하나의 메타담론이라고 가정할 때, (기존) 아시아 담론들을 재해석을 시도하고, 여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즉 메가아시아는 새로운 (아시아) 세계를 나타내는 단어이자, 기존 아시아 공동체에 새로운 무엇이 더해진 독특한 개념틀인 셈이다.

그렇다면 메가아시아는 기존의 아시아 담론과 어떤 차별성을 띠고 있는가? 첫째, 메가아시아는 기존의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지역설정 자체를 문제시한다. 기존의 아시아라고 지칭되는 지역범주와 달리, 메가아시아에서는 이전 아시아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간주되던 지역들도 포함시켰다. 관련해 윤종석 외(2021: 16)는 메가아시아 지역을 몇 가지 세부지역으로 구분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조지아, 아제르바이젠 등을 포함하는 중앙아시아지역, 한국, 일본, 북한, 몽골, 중국, 대만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지역,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을 포함하는 동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등을 포함하는 남아시아, 그리고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예멘 등을 포함하는 서아시아, 그리고 러시아를 포괄하는 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메가아시아는 대륙에서 일어나는 아시아의 문명교류뿐만 아니라 해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문명교류, 그리고 해상과 육상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역사적 사건들 등도 포괄한다.

둘째, 메가아시아는 기존의 아시아주의에서 논의된 단일한-연속적 시간 개념을 배격한다. 기존 아시아 담론들은 장기간 이어지는 단일하고도 지속된 시간 개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는 크게 3가지의 큰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유럽 팽창 이전에 아시아 지역들은 독자적인 상업 및 교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 나름의 국제질서(예: 조공체계) 및 이데올로기(예: 유교)를 통해 하나의 통합된 공동체를 유지·발전시켰다. ② 16세기 이래 본격화된 유럽의 식민주의적 팽창으로 인해 아시아 간의 교류가 일시적으로 단절되거나 혹은 식민세력의 의지에 따라 아시아 지역 간 연결이 이루어졌다. ③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각국은 다시금 자신들만의 방법을 통해 시나브로 연결되어 갔다. 3가지의 큰 흐름으로 아시아 역사를 해석할 경우, 우리는 아시아의 교류 및 연결을 하나의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지만, 동시에 그 한계점들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다. 한계점은 다름 아니라 아시아의 울퉁불퉁한 역사적 시간을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아시아 각 지역이나 국가들에서 오랜 시간 독자적으로 축적된 토속적인 유·무형

의 유산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큰 차별성을 지닌 채 발전해나갔다. 브로즈(Broeze, 1989: 3)가 지적했듯, 아시아 내 개별 국가들은 자연환경, 해외무역에서의 역할, 정치경제 및 이데올로기에 이르기까지 지역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띤다.² 19세기 이후만 보더라도, 아시아 각 지역의 발전경로들은 서로 다른 정치-경제논리와 목적을 지니고 있었던 제국주의 세력들에 의해 재편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문명권에서 가져온 합리성·근대성 논리를 내세워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국경선을 새롭게 그었고, 또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정치, 경제, 그리고 외교 시스템을 서구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각 국가(지역)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혹은 유산들은 서구화라는 기치 아래 사라지거나 종속되었고, 또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뒤틀려지기도 했다. 그 결과 아시아 각 국가(지역)들은 전통과 근대가 공존해 버리는 “비동시성의 동시성(Die Ungleichzeitigkeit des Gleichzeitigen)”을 경험해야 했고(Bloch, 1991[1935]),³ 아시아와 비(非)아시아지역 사이의 사회-경제적·문화적·정치적 차이뿐만 아니라, 아시아 내부에서도 수많은 사회-경제적 차이가 두드러지는 결과를 경험해야만 했다.⁴ 여기에 더해 우리는 ‘지역 간 대립과 (그에 따른) 불가피한 갈등의 공존’(예: 인도-파키스탄 분쟁, 인도-중국 국경분쟁, 중-러 국경분쟁, 남-북한 정전상태) 또한 새롭게 목도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단일한-연속적 시간 개념은 다양한 역사의 층위를 무시하게 한다. 관련해 브로델(Fernand Braudel)은 다양한 역사의 지속 시간대를 제시했는데, 그에 따르면 적어도 4가지 유형의 시간 개념(초장기지속, 장기지속, 중중투르, 사건의 시간대)이 역사 속에 중첩되어 있다고 파악했다. 역사의 편년체적 서술과 달리, 브로델은 다양하고도 복잡한 시간 개념을 통해 역사를 보다 중층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브로델의 시간 개념은 아시아를 접근할 때에도 유용하다. 왜냐하면, 아시아 내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연결은 다양한 시간대

² 아시아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7세기 초 마테오 리치 때부터였지만, “이 개념이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은 19세기 이후 유럽의 제국주의적 침탈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시아의 공유된 역사, 밀접한 문화적 연계, 장구한 외교적 관계 및 교역, 그리고 공동의 운명 등과 같은 공통점을 통합적으로 묶어” 내면서 부터였다(신범식, 2021: 6).

³ 브로즈(Brose, 2004: 16)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가리켜 “다른 시간대와 함께 살기”라 칭했다.

⁴ 예컨대 2차세계대전 이후 근대화 및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된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경우, 그렇지 못한 국가들 사이에는 소득격차, 사회·경제적 인프라 등에서 크게 차이가 났다.

를 통해서만이 확인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9세기 초 동중국해역에서 우리는 신라상인들의 적극적인 국제해상교류를 목도할 수 있다. 이들은 당에 거류구역을 만드는 한편, 일본과 당나라 신라 등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에도 참여했다. 나아가 16세기에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은무역이 성행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교류들은 분명 아시아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사적 순간들이었지만, 지속적이지 못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지정학적인 이유로, 혹은 경제적 이유로 어느 순간 교류들은 끊어지고, 또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보다 장기간 이어진 아시아 간 교류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당나라 시기 남중국해에서는 아랍 및 페르시아계 무슬림 상인들에 의해 국제적인 해상교류가 실시되었고, 당시 광주를 중심으로 복건, 양주 등에 이들 상인이 내항하거나 거주하기도 했다(에노모토, 2012: 31). 그리고 이런 무슬림 상인들의 중국 거류 및 상업활동은 송대 및 원나라 초기까지 이어졌다. 요약하면 우선, 비균질적이고, 상호충돌하기도 하며, 나아가 다양한 시간대가 공존할 수 있는 아시아의 문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그리고 단기간 혹은 상대적으로 장기간 이어진 아시아 간 문명교류 및 상업교류를 포괄할 수 이론적 개념으로 메가아시아는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메가아시아는 고대 아시아 해상세계에서부터, 전근대와 근대를 아우르는 남중국해 화교화인 네트워크(김종호, 2021) 및 장기 19세기 이후 근대 세계체계의 헤게모니가 대서양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전환되고, 이 과정 속에서 메가아시아가 만들어졌다고 바라보는 유성희(2021)의 관점도 포괄시킬 수 있다.

셋째, 메가아시아 개념은 오리엔탈리즘의 뒤집어진 형태로서, 아시아를 세계의 중심이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에도 반대한다. 물론 오리엔탈리즘⁵과 유럽 중심주의적 시각⁶은 아시아를 아시아답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주요 걸림돌이

⁵ 오리엔탈리즘은 서구의 시선과 관점으로 해석한 동양에 대한 모습이다. 그렇기에 그 속에는 서구인들이 기존에 비서구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오해를 그대로 담고 있을 수 있다. 비유컨대 우리가 하나의 프리즘을 통해 외부세계를 관찰한다고 할 때, 프리즘이 노란색이면, 프리즘을 통해 비춰지는 세계 또한 온통 노란색일 것이다. 똑같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비춰지는 세계는 서구인들의 시선으로 채색된 동양의 모습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비서구지역의 진실되고 본질적인 표상들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인식 속에서 왜곡되거나 잊혀진다.

⁶ 유럽중심주의는 유럽을 중심에 두거나 유럽을 평가의 기준으로 간주하는, 그래서 지구적 문명세계 내에서 유럽 또는 유럽인의 가치를 최우선시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었다. 그러나 오리엔탈리즘이나 유럽중심주의만큼, 아시아적 가치나 아시아 문명을 마치 오리엔탈리즘이나 유럽중심주의에 대항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간주하고, 이를 절대시·신성시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아시아 주요지역들의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정착화·고착화된 민족주의적 정서를 아시아의 고유한 가치라고 환원시켜 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관련해 사미다르(Samaddar, 1999)는 20세기 후반 남아시아 내 이주와 난민들에 대한 폭력이 민족 국가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아시아 내부에 존재하는 폭력과 구분 짓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메가아시아는 중요한 인식론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메가아시아는 서구의 팽창 이후 서구가 아시아에 미친 파괴적인 자본의 영향력과 더불어 서구와 아시아 사이의 다중다기한 네트워크 및 교류체계를 확인—차크라파티(Charkrabarty, 2014)가 지적한—하는 데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⁷ 다시 말해 메가아시아적 접근은 ‘아시아를 새롭게 상상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론적 대안일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메가아시아 연구는 몇몇 지역연구들에서 선보인 정책과학적 접근방식 및 근대화·개발 프로젝트와 다른 입장에서 서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 선보인 지역연구의 경우, 자신들이 처한 지정학적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나갔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는 당시 미국이 처한 지정학적 상황 및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밀접히 연관된다(김경일, 1998: 20). 전쟁수행에 필요한 지역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리고 특정 지역 내 얽혀 있는 사회·문화·경제·정치를 알기 위해, 지역연구가 새롭게 선보였다(Morgenthau, 1952: 647). 다시 말해 미국이 처한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미국의 대응을 위해 고안된 “정책과학”이 미국의 지역연구인 것이다(도오루, 1998: 52; Fenton 1947: 1-3). 2차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미국의 지역연구는 냉전이라는 새로운 지정

⁷ 차크라바티는 이를 역사 1과 역사 2로 구분해 제시하는데, 역사 1은 유럽에서 시작된 보편적이고도 총체화된 하나의 역사를 뜻한다. 이와 반대로 역사 2는 보다 개별화되고, 특수한, 다층적인, 그리고 불확정된 소수자들의 역사를 지칭한다. 비록 역사 1이 가지는 계몽주의적 보편원리가 우리들의 삶을 통제하고 또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해 있지만, 역사 2가 지향하는 불확실한, 새로운, 그리고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역사 1이 끊임없이 수정되고 있음을 차크라바티는 지적하며, 이런 과정을 ‘유럽의 지방화’라 명명했다.

학적 상황 및, 자유주의 세계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사고에 사로잡혀 지역연구를 정치적·전략적으로 접근하곤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식 발전모델과 자유주의를 홍보하고 또 이를 제안하기 위해 서구중심적·보편적 발전모델인 근대화프로젝트를 지역연구와 결합시키곤 했다. 이처럼 주변의 지정학적 관계와 특징이론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지역연구 접근법으로, 메가아시아 연구 또한 나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메가아시아는 나름의 이론적·실천적 중요성을 띤 담론이다. 문제는 이런 메가아시아 담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시급히 다루어야 할 부분은 바로 메가아시아를 둘러싼 정체성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메가아시아는 하나의 이론적 체계인가, 아니면 방법론적 도구인가? 만약 메가아시아가 하나의 통일된 명제를 가진 이론적 체계라면, 메가아시아에 대한 개념의 조합과 더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설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예컨대 사회체계와 관련된 이론을 제시한 탈코트 파슨스는 사회를 “인간들 상호관계의 총체적 복합체” 그리고 “사회적 관계들의 복합체”(Parsons, 1991: 120)로 규정짓는 동시에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급자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독립된 사회체계(Parsons, 1966: 9; 1991: 8)라 정의했다. 사회가 실재한다는 가정하에, 사회체계가 자신의 구조적인 형태유지 및 향상성을 위해 다양한 기능을 만들어 왔다고 그는 해석한 것이다. 메가아시아가 하나의 이론적 체계라면—파슨스의 주장처럼—, 1) 메가아시아가 실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2) 자기발전적·자기향상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3) 메가아시아 내 구성요소들과의 유기적 관련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메가아시아가 20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새로운 아시아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 도구라면, 그에 대한 논리적합한·현실적합한 경험적 연구들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 세계를 이해하고 이것을 메가아시아적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인문·사회과학적 데이터들 혹은 경험연구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메가아시아는 방법론적 도구로서 매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저자는 메가아시아를 하나의 이론적 체계인 동시에 방법론적 도구로서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가정해 본다. 그리고 메가아시아 담론을 이론적 체계이자 방법론적 도구로 해석하기 위해, 기존에 이와 유사한 연구를 진행한

이매뉴얼 윌러스틴의 세계체계분석을 소개하려 한다. 이후 윌러스틴의 세계체계분석과 비교하면서, 메가아시아가 어떤 이론적·방법론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해 보려 한다. 다만 이런 접근의 경우, 하나의 명쾌한 해답을 찾는 데 목적이 있기보다는 메가아시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시론적 시도임을 명백히 한다.

II. 이론적 체계이자 방법론적 도구로서의 메가아시아

앞에서 간략히 언급했듯, 메가아시아는 과거 아시아가 만들어 낸 세계를 지칭하지 않을뿐더러 이를 지향하지도 않는다. 이런 점에서 메가아시아는 새로운 (아시아) 세계를 나타내는 단어이자, 기존 아시아 개념에 새로운 무엇이 더해진 독특한 개념틀이다. 문제는 메가아시아가 이런 정체성을 띠고 있기에, 이를 외부의 그리고 과거의 아시아에 대한 논의들을 통해 분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메가아시아가 ‘새로운 아시아들에 대한 메타이념적 구성체’이기에, 메가아시아의 정체성은 내부로부터 얻어야 할 답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메가아시아는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개념어이지만, 동시에 기존 아시아에 대한 담론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아시아 개념을 제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아시아 연구들을 포괄해야 한다(기존의 아시아에 대한 담론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가운데, 메가아시아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기에). 그렇기에 메가아시아 연구자들은 새로운 연구대상(메가아시아)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아시아 개념과 비교·대조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메가아시아 개념은 기존 아시아 개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한 개념이다. 그렇기에 메가아시아에 대한 기술(記述)은 한편으로 메가아시아가 가지는 새로움을 담아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기존 아시아 개념들과 주고받는 담론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메가아시아 개념을 어떻게 연구대상화할 것인가? 또 이를 위해서 어떤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를 활용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연구자는 적어도 메가아시아가 하나의 이론적 체계를 지니는 동시에 하

나의 방법론적 도구로서도 활용가능하다고 가정할 것이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론적 체계로서 메가아시아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또한 이론적 체계로서 메가아시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향상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메가아시아가 기존 아시아 담론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아시아에 대한 상상을 가능케 하는 방법론이라면,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이론) 체계는 ① 경계 지어진 사회적·공간에서, ② 나름의 독특한 원리를 통해, ③ 사회현상을 해석·분석하는 일련의 명제들로 구성된다. 사회이론 체계는 그동안 사회이론가들에 의해 많이 연구되었다. 예컨대 칼 마르크스(Karl Marx)는 자본주의 체계(capitalist system) 속에서 어떻게 자본이 '단순재생산에서 확대재생산으로 변화되는지를 포착하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노동자들의 착취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했다(Marx, 1983: 581). 또한 하버마스(Jürgen Habermas)는 근대세계를 두 가지 측면(생활세계(life world)와 체계(system))으로 구분한 다음, 생활세계(의사소통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가 어떻게 체계(경제적 자원으로서의 '돈'과 정치적 자원으로 '권력'으로 구조화된 제도적 복합체)에 의해 침투·잠식되고 있는지를 보여 준 바 있다(하버마스, 2006: 307).

반대로 방법론적 관점을 제시한 사회과학자로서 우리는 베버(Max Weber)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베버가 제시한 이념형(Idealtypus)은 사회현상이나 사회적 행위를 이해하기 하나의 인식론적 수단이었는데, 류성희(2011: 39)는 이를 가리켜 “현실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고 언급했다. 관념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념형은 현실적인 적합성과 그리고 논리상의 정치함을 통해 현실을 설명하는 방법론적 도구이다. 그렇기에 “(이념형)은 목적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서만 나타날 뿐이다”(Weber, 1922: 193). 그리고 이런 이념형은 그것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베버는 지적했다(Weber, 1922: 195).

메가아시아가 사회(이론)체계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 도구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둘 모두를 포괄할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고에서는 사회(이론)체계적 특성뿐만 아니라 방법론적 도구로서 활용가능한 윌러스틴의 세계체계분석을 활용코자 한다.

우선 윌러스틴의 세계체계분석은 나름의 사회(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월러스틴이 제시한 세계체계 개념은 그 자체로 초국가적 독립체(a trans-societal entity)인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위계적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체계는 하나의 역사적 구성체라는 경계지위진 사회적 시·공간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월러스틴은 여기에 기초해 나름의 독특한 원리(예: 콘드리에프 사이클과 같은)를 보여 주는 한편,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경기가 어떤 순간에 상승 혹은 하강했는지를 설명했다. 이는 세계체계분석이 하나의 이론적 체계임을 보여 주는 하나의 근거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월러스틴은 스스로 자신의 세계체계분석을 가리켜 이론이 아닌 관점(perspective)이라 주장했다(Wallerstein, 2012). 즉, 세계체계분석은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하나의 인식론적 틀 혹은 세계정치-경제체계를 조직하고 있는 불균등하고도 위계화된 논리를 인식하는 하나의 방법론적 도구라 지칭했던 것이다(Babones, 2015: 4-5). 이처럼 월러스틴의 세계체계분석에는 이론적 체계와 방법론적 도구라는 방식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런 세계체계의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 관점의 혼재가 바로 메가아시아의 정체성을 밝혀 줄 하나의 등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메가아시아 개념 또한 이론적 체계와 방법론적 도구로서의 관점 모두를 가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론적 체계로서 메가아시아는 초국가적인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지역들) 간의 네트워크적 특성이라는 하나의 고정된 실체를 지칭한다. 실제 메가아시아는 아시아 각 지역들의 유기적인 지경학적 혹은 지정학적 통합과 연결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니라 “네트워크화된 지역(networked region)”이라는 점이다. 신범식(2021: 15)이 지적했듯, 네트워크화된 지역은 “제국의 힘이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지역들의 연결에 의해 구성되는데,” 다층적인 연결과 교류를 통해 만들어진 지역단위의 통합된 공동체가 바로 메가아시아이고 이것은 나름의 실체를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메가아시아는 역사적 구성체인 동시에 (비록 단수의 역사적 기원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연결방식을 통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연결성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그는 해석했다.

동시에 메가아시아는 방법론적 도구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메가아시아라는 관점을 통해 기존의 아시아 담론들을 재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예컨대 우리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일본에서 범아시아주의(Pan-Asianism)를 메가아시아적 관점을 통해 재해석할 수 있다. 일본에서 시작된 범아시아주의 논의는 서구의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문명화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자, 러-일전쟁 이후, 아시아지역을 보다 조화롭게 만들고 또 아시아 문명을 하나의 공통된 카테고리 수렴해 서구의 식민지 침탈로부터 아시아를 보호하려고 만든 개념구성체였다(Duara, 2001: 110).⁸ 이런 범아시아주의는 분명 아시아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려는 하나의 사상체계였다. 그러나 메가아시아적 관점에서 볼 때, ‘범아시아주의’ 사상이 어떻게 일본과 중국의 민족주의적 혹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마인드와 긴밀히 결합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⁹ 이처럼 메가아시아 개념은 기존 아시아 담론들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론적 도구로서도 이용될 수 있다.

III. 이론적 체계와 방법론적 도구로서의 세계체계이론

본 연구는 이론적 체계이자 방법론적 도구로서 해석될 수 있는 월러스틴의 세계체계관점을 통해 메가아시아의 개념을 고찰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월러스틴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체계를 우선 소개하고자 한다. 이후 방법론적 도구로서도 해석될 수 있는 세계체계관점을 본 장에서 다룰 예정이다.

⁸ 이런 범아시아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서구와 비서구사이의 대립, 그리고 미국 내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에 반대해, 큰 반향을 얻기도 했다. 당시 일본 지식인들 예를 들면 오카와 슈메이(Okawa Shumei), 이시하라 칸지(Ishihara Kanji)는 서구의 반서구적·반아시아적 차별에 대해 아시아를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고 소리 높였다. 일본의 범아시아주의는 이후 중국의 여러 지식인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쳤다. 예컨대 중국의 사상가이자 중국공산당의 공동 설립자인 리다자오(Li Dazhao)—일본 지식인인 카잔(Kayahara Kazan)에 지적 영향을 받은—은 동양과 서구를 합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문명으로서 아시아주의를 주장했다. 또한 19세기 말부터 중국에서 발전한 아시아주의 담론은 동양문명의 차별성 및 우월성을 설명할 때에도 예를 들면 두야첸(Du Yaquan), 순약센(Sun Yat-Sen)이 종종 등장했다(Smith, 2014).

⁹ 범아시아주의와 일본의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로서는 Szpilman and Saaler(2011) 참고.

1. 월러스틴의 세계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론적 체계

월러스틴은 세계체계관점을 제시하면서, 세계체계 내 여러 가지 이론적 특징들을 제시했다. 월러스틴에 따르면 세계체계는 집합적 유기체로서의 성격을 가진 동시에¹⁰ 체계의 속성을 지닌 초국가적인 단위체였다. 뿐만 아니라 월러스틴에 따르면 세계체계는 자기완결적 그리고 자기충족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근대 세계체계』 1권(1974)이 발간된 이후 그의 세계체계 분석이 ‘하나의 이론적 체계’로 거론된 이유는 체계에 대한 상세하고도 명쾌한 하나의 명제 때문이었다: “내 생각하는 한 사회체제를 특징짓는 것은 그 안에서의 생활이 ‘주요’ 자기완결적이라는 점과 그 발전의 원동력이 주요 내재적이라는 점이다”(월러스틴, 2001: 531). 월러스틴의 말을 풀어 설명하면, 근대 세계체계는 하나의 독립된 유기체로서 자신만의 속성을 지니고, 자기만의 동력을 통해 작동되는 초국가적인 단위체이다.

이런 월러스틴의 관점에는 초국가적인 세계체계를 작동시키는 몇 가지 내적 메커니즘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는 다름 아닌 상품들의 연쇄(commodity chains)¹¹와 국제적인 노동분업체제(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system)였다. 장기 16세기에 형성된 자본주의 세계체계는 초창기부터 하나의 거대한 초국가적인 세계경제로 자리매김을 했고, 그 이후 ‘자본의 끊임없는 축적’이라는

¹⁰ 월러스틴은 자본주의 세계체계를 설명하기 위해 유기체와 종종 비교한 적이 있다: “그것은 유기체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유기체로서 그것은 수명이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특징은 변화하고 또 어떤 특징은 변함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월러스틴, 2001: 531). 즉 유기체가 특정한 시기에 탄생, 성장, 쇠퇴, 사멸하는 것처럼, 자본주의 세계체계 역시 이런 동일한 과정을 겪는다고 월러스틴은 지적했다(이광근, 2020: 181).

¹¹ 세계체계에서 말하는 상품연쇄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상품 생산 및 소비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국내 차원의 생산-소비 연결망과 달리, 자본주의 세계체계 내 상품연쇄는 전 지구적 체계 내에서 작동되는 다양한 형태의 생산과 노동과정의 구조화된 형태를 추적할 수 있게 해 주기에(Martin, 1994: 158), 이 개념은 자본주의 세계체계가 어떻게 경제적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작동되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작동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다. 홉킨스와 월러스틴(Hopkins and Wallerstein, 1977: 128)은 상품연쇄에 대해 “상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여러 항목들—원자재, 운송 메커니즘, 노동, 노동자들에게 소비하는 음식—이 서로 연결되어 이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상품연쇄의 예로서 ‘의류’를 든다면, 여기에 의류생산에 필요한 천(yarn), 면(cotton)의 재배 및 각 단계에 들어가는 노동력” 등이 상품연쇄과정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목적하에, 국가와 지역들 사이의 상품들을 연결하고 또 기축적 분업을 유지·발전시켰다고, 월러스틴은 바라봤다. 그리고 상품들의 연쇄와 국제적인 노동분업 체계는 소위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라는 위계화된 그리고 촘촘하게 짜여진 지리적 구조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월러스틴은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자기완결적·자가동력적 초국가적인 단위체의 존재여부는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경기변동과정 즉, 콘드라티에프 주기(Kondratieff cycle)를 통해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월러스틴은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이루어진 근대 세계체계의 팽창과 수축을 설명하고자 “콘드라티에프 파동(Kondratieff wave)”이라는 개념을 선보였는데, 이는 이전 콘드라티에프(Nikolai Dmitriyevich Kondratieff)가 선보인 개념—19세기 이후 경제의 반복되는 순환을 주장—을 발전시킨 것이다(Kondratieff, 1984: 61-62). 콘드라티에프의 경우 19세기 이전 시기는 빈약한 통계 데이터로 인해 경기순환을 설명할 수 없다고 했지만, 월러스틴은 15세기 말 혹은 16세기 초 자본주의 세계체계가 등장한 이후, 반복적인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경기순환(약 100~150년 간격으로)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했다. 15세기 말부터 19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루어진 자본주의 경기순환 모델을 제시하고자, 월러스틴은 빈약한 통계 데이터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구성요소들(자원할당, 부와 빈곤, 임금고용, 산업기업들의 존재 등)을 더해 자신만의 경제순환 모델을 만들어 냈다(Wallerstein 1980: 8). 뿐만 아니라, 콘드라티에프가 주장한 경기순환 모델에 시미앙(François Simiand)이 주장한 “백년주기 순환모델(trend séculaire)” 및 카메론(Rondo Cameron)의 ‘로지스틱 곡선(logistic curve - S curve)’ 개념을 추가시켰다.¹² 빈약한 통계 데이터에 새로운 요소들을 더하고, 또 시미앙과 카메론의 관점을 활용해 월러스틴은 장기 16세기부터 만들어진 100~150년 단위의 장기 경제순환 사이클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¹³

¹² 다른 한편 월러스틴은 시미앙의 100년주기 경기모델의 경우 ‘경제순환 사이클의 전환과정’ 및 ‘상세한 경제순환 리듬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search Working Group on Cyclical Rhythms and Secular Trends, 1979: 408). 또한 카메론(Cameron, 1973)이 비록 인구성장과 유럽의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며 ‘로지스틱 S 커브모형’을 제시했지만, 자본주의 세계경제 혹은 자본주의가 언제 시작했는지에 대한 충분하고도 명쾌한 설명이 없었다고 월러스틴은 그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¹³ 한편, 이를 통해 월러스틴은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기원을 어느 정도 설명해 내기도 했는데, 구

게다가 자본주의 세계체계는 체계 내부의 논리에 따라 그 외부 경계를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간 자기팽창적 유기체이기도 하다(Wallerstein, 1989). 경기의 반복적인 상승과 하락이라는 순환 속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기술혁신, 국제적인 노동분업체계, 핵심부 지역과 주변부 지역들 간의 불균등한 교환은 자본주의의 지리적 외연이라는 지속적으로 확장시켰다. 그 결과 18세기 인도 아대륙, 오스만제국, 러시아 제국, 서아프리카, 그리고 19세기 중국, 한국 등을 포함한 다수의 아시아 지역들이 새롭게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포섭되고 말았다(Ru, 2020).¹⁴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자면, 자본주의 세계체계라는 거대한 초국가적인 단위체는 자급자족을 위해 독립된 그리고 동시에 상호 연결된 내부적인 하부요소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나아가 외부로의 팽창을 통해 그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갔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계체계관점이 가지는 몇 가지 이론적 체계의 요소들을 추출해 낼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바로 유형유지이다. 월러스틴의 세계체계관점은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안정성과 밀접히 연관된다. 관련해 임현진과 장진호(2021: 21)는 월러스틴의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장기적인 주기적 변동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정체 국면을 맞이하였지만, 그때마다 체제 개조에 의해 그것을 극복하고 존속해 올 수 있었다.” 그리고 체제 개조는 1) 위계적으로 조직

체적으로 월러스틴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커다란 사회변화를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공중크튀르의 거대한 압력들이었다”(월러스틴, 2001: 66). 즉 월러스틴은 공중크튀르의 주기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자본주의 세계체계가 시작되었다고 바라본 것이다.

¹⁴ 이 외에도 월러스틴의 근대 세계체계 개념 속에 배태된 이론적 체계적 논리로서 세계체계가 행사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관련해 세계체계가 어떻게 체계 내부의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 월러스틴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역사적 자본주의는 구체적이며, 시간적·공간적으로 한정된 그리고 통합되어 있는 생산활동들의 장인바, 그 안에서는 끝없는 자본축적이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지배 또는 통제해 온 경제적 목적 혹은 ‘법칙’이었다. 그것은 이런 규칙에 따라 움직여온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그 밖의 사람들도 그런 행동을 따라야지 그렇지 않았다가는 여기에서 오는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을 조성해 온 그런 사회체제다”(월러스틴, 1993: 19). 즉 자본주의 세계체계는 체계 내 구성원들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체계 외부에 존재하는 이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자본주의의 논리들을 내재화시키게끔 유도한다. 이때 자본주의 논리는 단순히 인간존재 외부에 주어질 환경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구속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규율에 가깝다.

화된 상품사슬의 골격을 유지하는 한편,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 사이의 끊임없는 자리바꿈을 통해, 2) 세계시장 내 유효수요의 증대를 통해, 그리고 3) 반프롤레타리아들의 활용¹⁵과 그로 인한 노동비용 감소를 통해 가능하다고 임현진과 장진호는 해석했다.

그렇다면 월러스틴이 제시한 세계체계의 유형유지적 특징은 어떻게 이론적 체계와 연관되는가? 이론적 체계가 자신의 독자성과 그 의미체계를 유지시키려 노력하는 것처럼,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계 또한 단일한 체계를 지탱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체계를 존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 내 구성요소들은 지속적으로 자리바꿈을 했고, 전 지구적인 분업체제를 활용해 다양하고도 새로운 물품을 꾸준히 생산해 냈다. 나아가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노동력을 만들어 내, 상품생산과정을 단축·유연화시켰다.¹⁶ 이런 일련의 논의들은 월러스틴의 세계체계적 관점이 나름의 이론적 특징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이다.

둘째는 외부지역으로의 확장이다. 이는 외부지역(external arena)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자기완결적 체계를 지니는 자본주의 세계체계는 자본의 축적이라는 목적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외연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한 때 자본주의 세계체계 밖에 존재하던 많은 지역들이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포섭되기에 이르렀다(Wallerstein, 1989). 그 결과 새롭게 편입된 지역들은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논리에 새롭게 적응하는 한편(경제적 활동의 변화, 제도나 법 혹은 규율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전 지구적 자본의 축적이라는 목적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이런 외부지역의 자본주의 세계체계 편입에서 우

¹⁵ 임현진·장진호(2020: 21)가 잘 설명했듯이 자본가는 노동조합에 소속된 중심부 국가의 프롤레타리아보다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노동자 계급보다 임금이 낮은 주변부(혹은 새롭게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편입해 들어온)의 반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반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소속된 이들은 저임금·임시직으로 고용되어 있기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가족노동, 지대수입 등)을 병행하곤 한다. 이 가운데 가장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노동이다. 예컨대 주중의 오전에는 자본가가 경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또 오후에는 집안에서 노동을 하는 식이다.

¹⁶ 역사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 계급들(반프롤레타리아, 쿨리노동자, 불법이민노동자 등)이 자본주의 세계체계에서 만들어졌다.

리는 또한 나름의 이론적 체계를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월러스틴이 주장한 바, 세계체계 내부는 나름의 독특한 운영 메커니즘을 가진다. 그러나 동시에 세계체계는 외부환경과 끊임없는 관계를 유지시키면서 발전해 나간다. 그렇기에 월러스틴의 자본주의 세계체계관점은 개방적일 뿐만 아니라 동태적인 특징을 띤다. 비교해서 (사회)이론적 체계 또한 상당 부분 이런 특징들을 가진다. 즉, (사회)이론적 체계는 내부의 명제들을 확인시키고 논리를 강화시켜 주는 일련의 규칙들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이론적 체계는 내부의 규칙성을 확장시키는 동력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런 이론적 체계의 확장이야말로 규칙의 연속성과 항상성 및 발전을 도모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된다. 요약하면, 내부적 논리에 따라 팽창되는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지리적 확장은 이론적 체계의 특징과 유사하다.

2. 방법론적 도구로서의 세계체계이론

앞서 우리는 월러스틴의 세계체계분석이 가지는 이론적 체계의 특징들을 살펴 보았다. 월러스틴의 세계체계분석은 세계체계를 하나의 독립된 그리고 “폐쇄적인 작동상의 재귀성”(루만의 표현을 빌려 설명하면)을 통해 체계유지를 지속시켜 나갔다. 동시에 월러스틴이 상정한 자본주의 세계체계는 내부적 논리의 팽창을 통해 지속적으로 외부지역을 체계 안으로 포섭시켰다. 이런 점에서 월러스틴의 세계체계분석은 이론적 체계가 가지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 내릴 수 있다.

보다 중요한 점은 월러스틴의 세계체계분석이 이론적 체계의 요소만 가질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 특징도 가진다는 점이다. 실제 월러스틴은 자신의 세계체계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선보인 세계체계 개념이 하나의 ‘이론’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혔다(Wallerstein, 1998: 103). 이런 점에서 그는 세계체계분석이 하나의 분석단위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월러스틴은 분명 자신의 학문 여정에서 자본주의 세계체계가 가지는 이론적 체계의 관점을 벗어나려 했던 학자라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월러스틴 본인 스스로도 느낀 한계점 때문이기도 했지만, 주변에서도 늘 지적되어 오던 몇 가지 뼈아픈 비판 때문이었다. 학문적 여정의 초창기 시절, 월

러스틴이 자본주의 세계체계를 하나의 역사적·이론적 체계라고 언급하자, 주위 학자들은 이런 윌러스틴의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우선, 일부는 윌러스틴의 세계체계적 분석이 하나의 이론적 체계이기예, 그의 관점이 기능주의와 다르지 않다고 바라봤다(Anievas and Nişancıoğlu, 2017; Aronowitz, 1981; Foster-Carter, 1978; Skocpol, 1977). 이들이 바라보기에 세계체계는 하나의 자기완결적-자기독립적 사회체계이기예, 그 내부의 동학이 마치 전체(즉,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생존과 발전)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양 이해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서 국가 간 관계가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논리에 종속된다는 윌러스틴의 이론적 체계는 전체론적인 측면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가의 자율성을 세계체계의 생존 및 팽창논리로서만 환원시켜 이해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에 노출되어야만 했다.¹⁷

나아가 윌러스틴이 제시한 콘드라티에프 순환을 둘러싸고도 비판이 이어졌는데, 대표적으로 아부루고드(Abu-Lughod, 1989: 356)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경제의 팽창과 위축이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콘드라티에프(45~55년) 순환이나 기타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제순환 주기들을 하나의 인위적인 단위로 보는 것은 신비로워 보일 정도다.” 윌러스틴의 방법론적 한계를 지적한 맥마이클(McMichael, 1990, 2000) 또한 윌러스틴이 가지는 문제점—자본주의 세계체계라는 전체만을 고려하고, 전체와 자본주의 세계체계를 구성하는 부분들 사이의 관계를 무시—을 비판하는 한편, 전체와 부분의 유기적 결합을 강조하면서 통합적 비교방법(incorporating comparison)을 제시했다.

이런 비판을 극복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윌러스틴은 세계체계분석이 하나의 ‘방법론적 도구’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세계체계분석이 방법론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함은,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사회경제적·정치적 현상(특히 자본주의 체계라는 거시적 관점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을 이해·분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치환시킬 수 있음이다. 나아가 자본

17 김멜(Kimmel, 1982: 249)의 주장에 따르면, 윌러스틴의 세계체계적 분석 속에서 국가는 단지 정마장 내 기수(jockey)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의 세계체계가 가지는 네트워크적 속성을 통해 파편화된 역사적 사건들이나 상황들을 하나의 조직화되고, 일관된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을 뜻한다. 바보네스(Babones, 2015)가 지적했듯, 월러스틴의 세계체계 분석은 사회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에, 마르크스의 역사적 자본주의에 대한 관점을 가장 넓은 각도로 확장시킨, 그래서 그 실용성에 의의를 둔 분석방식이자 방법론적 도구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월러스틴의 세계체계가 방법론적 도구로서 활용된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우선 일부 연구자들은 근대화이론의 모범적인 예가 되었던 동아시아의 발전과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 세계체계분석을 활용했다. 근대화 담론의 기본적인 가정인 ‘내재적 발전론’보다 외부적 요인을 강조하면서 이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이 소위 ‘종속적 발전론(dependent development)’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1960년대 후반 시작된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 국제금융체계의 불안정함, 중심부 국가들 사이의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중심부의 산업자본이 개발도상국(동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 국가)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이런 제조업생산의 전 지구적인 재배치 전략이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발전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윤상우, 2002: 26). 즉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바로 중심부 국가들과의 이해관계 그리고 국제적인 노동분업의 재구조화라는 거시적·외부적 상황에서 의해 만들어졌다고 보았기에, 이를 ‘초대에 의한 발전(development by invitation)’이라 명명했다.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격한 경제성장의 배경에 있어서도 미국의 정치적 헤게모니전략(공산진영의 비확산화)이 함께 결부되어 있다고 월러스틴은 주장했다(Wallerstein 1992). 즉 소비에트 연방의 사회주의 세력이 동아시아 주요 지역들(한국, 대만 등)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었고, 그 덕분에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짧은 시간 안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체계분석의 주요 논리들을 활용해 20세기 후반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방향을 그려 낼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서 우리는 19세기 중국의 급격한 쇠퇴를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동학을 통해 이해할 수도 있다. Ru(2019)가 지적했듯, 그동안 19세기 중국쇠퇴를 비교역사사회학 연구들은 그 내부적인 동인들에만 집착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외부적인 영향력(특히 서구 자본주의 세계체계와의 연결 속에서 만들어진)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했다(Goldstone, 1996; Landes, 2006; Tilly, 1990; Weiss and Hobson, 1995). 또한 비교역사사회학 연구들은 각 사회(국가)의 독립성·자족성을 강조한 나머지, 어떻게 중국이 19세기 다른 국가들 및 사회와 연결되어 있었는지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9세기 중국의 급격한 쇠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서구 자본주의체계의 영향력을 고려함과 동시에, 중국과 외부세력들과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있어서도 세계체계분석은 의미 있는 분석틀로 활용될 수 있다.¹⁸

이처럼 윌러스틴의 세계체계분석은 그 이론적 체계만큼이나 방법론적 도구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이다. 이런 세계체계가 가지는 이론적 체계로서의 특징과 방법론적 도구로서의 활용이 어떻게 메가아시아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IV. 윌러스틴의 세계체계이론으로 바라본 메가아시아

지금껏 윌러스틴의 세계체계분석을 이론적 체계 그리고 방법론적 도구라는 관점으로 설명해 보았다. 그렇다면 윌러스틴의 세계체계적 관점은 메가아시아의 특성을 밝히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선 윌러스틴은 자본주의 세계체계가 특정 시기(장기 16세기)에 그리고 특정 지역(서유럽)에서 등장했다고 바라봤다. 윌러스틴은 자본주의라는 하나의 거대한 초국가적인 체계에 역사와 지역을 결합시켰고, 이를 통해 하나의 지정학적·지

¹⁸ 외부적 영향력 혹은 서구-중국의 관계를 통해 19세기 중국의 쇠퇴를 연구한 예로서 첸(Chen, 2017)은 광저우에서 국제무역을 이끈 매더슨(James Matheson)과 자딘(William Jardine)이 어떻게 아편전쟁을 만든 숨은 주역이었는지를 밝혀냈다. 매더슨과 자딘은 중국에서 거두어들이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이 결과적으로 영국의 국익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아편거래를 금지할 경우, 영국은 전쟁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실제 이들은 아편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영국 정부에 로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사정보를 영국 정부에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19세기 중국의 급격한 사회경제적·생태학적 쇠퇴를 설명하는 데 있어 Ru(2021)는 중국 남부의 수출지향적 차산업이 어떻게 영국의 차수입 다변화구조로 인해 쇠퇴하게 되었는지, 또한 대규모 수출지향적 차산업에서 비롯된 생태학적 저하(ecological degradation)가 어떻게 중국의 쇠퇴를 촉진시켰는지를 보여 주었다.

경학적·역사적 자본주의 체계가 어떻게 운영·지속 되었는지를 보여 주었다.

이런 월러스틴의 세계체계분석은 몇 가지 면에서 메가아시아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 월러스틴의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대한 이론적 아이디어가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메가아시아의 이론적 체계에도 역사성을 결합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월러스틴 스스로 지적했듯, “역사적인 모든 것은 체계적이고, 체계적인 모든 것은 역사적이다.” 그리고 이런 명제하에서 “모든 복합적 현상들은 자체의 규칙과 제약요소, 자체의 추세 또는 벡터, 즉 자체의 구조들”을 지닌다고 그는 주장했다(월러스틴, 1994: 297). 월러스틴의 세계체계분석이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등장한 것처럼, 메가아시아 개념 또한 특정한 시·공간 그리고 아시아 내부의 지정학적·지경학적 맥락 속에서 탄생했다. 윤종석 외(2021: 60)는 메가아시아의 역사성이 ‘연결’과 ‘네트워크’로서의 아시아 ‘지역사’, ‘교류사’, ‘지구사’를 통해 발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21세기 이후 소위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되기도 했다(신범식, 2021: 9).

둘째, 월러스틴은 국민국가단위를 뛰어넘는 다양한 형태의 세계정치 및 경제 단위를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월러스틴(2004: 90)은 인류역사에서 여러 가지 세계체계나 세계제국들이 형성되었다고 지적했다: “브로델과 나는 세계 경제가 시작과 끝이라는 생명력이 있는 유기적 구조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인류역사에는 여러 세계경제(world-economies)와 세계제국들(world-empires)이 존재해 왔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나는 조심스럽게 단일한 세계체계분석(world-system)이 아니라 세계체계(들)분석(world-systems analysis)이라고 말하려 한다.”¹⁹ 그리고 월러스틴이 지적한 세계체계 분석에서, 우리는 다층적인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자본주의 세계체계로 편입되기 전, 중국은 세계제국이라는 단일한 시간대를 살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편입됨에 따라 중국은 세계체계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계체계로서의 시간대 또한 부여받게 되었다. 그에 따라 19세기 이래 중국은 한편으로는 세계제국의 시간대를,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체계의 시간대를 살아가야만 했다. 이런 월러스

19 물론 이런 주장과 별개로, 월러스틴의 주요 분석대상은 장기 16세기 이후 등장한 근대세계체계(the modern world-system)였다.

턴의 세계체계 개념과 유사하게 메가아시아 또한 단일한 아시아 담론과 치환되지 않는다. 더불어 하나의 시간성만을 지칭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메가아시아는 여러 담론들을 포괄하는 메타담론적 성격을 띤다. 동시에 메가아시아는 다양한 역사적 시간대의 중첩을 포괄하는 담론이자 때로는 불연속적인 시간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셋째, 월러스틴은 근대 세계체계(혹은 자본주의 세계체계)가 기존 역사에서 등장했던 세계경제들과 확연히 구분된다고 주장하며, 근대 세계체계가 가지는 독특한 특징으로 마르크스의 ‘자본’개념을 활용했다(Marx, 1973[1858]: 335). 스미스(Adam Smith)가 주장한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에 기반한 유기적인 분업체계와 달리,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계는 폭력(violence), 독점(monopoly), 착취(exploitation), 및 불평등한 교환(unequal exchange) 등을 기반으로 성장해 나갔다고 그는 주장한 것이다.²⁰ 그리고 이런 논리들을 타 지역에 강제로 이식시킨 것이 바로 유럽에서 발현된 새로운 형태의 불균등한 지구적 경제 네트워크, 즉 근대세계체계였다. 나아가 이런 근대세계체계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자본의 끊임없는 축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소위 필수품들의 장거리 무역이 본격화되었다고 월러스틴은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근대세계체계가 등장하기 이전의 국제무역들은 기본적으로 사치품(luxury goods)들의 생산과 소비이기에, 그 범위나 물량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반대로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계 내에서 통용되는 물품들은 사치품보다 필수품(essential goods)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물품들이었고, 이를 통해 생산량과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고 월러스틴은 덧붙였다(Wallerstein, 1974).²¹ 요약하면, 월러스틴은 세계체계를 어떤 단일한 초국가적 경제단위로 해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월러스틴은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계가 기존의 세계경제들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명쾌히 제시했다. 월러스틴의 세계체계 개념과 비교해 볼 때, 메가아시아 개념 또한 기존 아시아 담론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창발성을 포함한다.²² 이런 메가아시아에 대한 이론적 구상

²⁰ 브로델(Braudel, 1982: 588-589) 역시 비슷하게 자본주의를 정의 내렸다.

²¹ 물론 월러스틴은 「근대 세계체계」 3권에서 사치품과 필수품의 명쾌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²² 이런 메가아시아에 대한 사유는 최근 지리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아상블라주 개념을 상기시킨

은 메가아시아의 정체성이 어떻게 시작되고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자본주의 세계체계가 그 하부구조들과 구분되어 존재하는 동시에 하부구조들과의 관계를 통해 작동되듯이, 메가아시아 역시 아시아들과 구별되는 동시에, 아시아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월러스틴이 지적했듯, 자본주의 세계체계는 콘드리에프 사이클과 같은 순환주기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상승과 하강곡선을 그려 나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체계는 지속적으로 그 외연을 확장시켰고, 자본주의 논리 또한 유연하고도 탄력적으로 바뀌어 나갔다. 이런 접만을 고려하면 자본주의 세계체계는 부분들과 독립된 전체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본주의 세계체계는 그 하부의 구성요소들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예컨대 자본주의 세계체계는 경제적인 하부구성요소로서 초국가적 상품의 연쇄과정 및 국제적인 노동분업체계를 통해 지역 및 국가들과 연결되었고, 이데올로기적인 하부구성요소로서 보편주의·중도자유주의·과학주의 등을 통해 각 지역에 통용되는 보편적 담론을 만들어 냈으며,²³ 정치적으로 하부구성요소로서 국가간 체계(inter-state system)를 통해 국가 간 위계질서를 확립시켰다.²⁴

다. 김숙진(2016: 312)이 지적했듯, 이상블라주적 사유는 “흐름, 연결, 생성에 의해 특징지어지고, 작동논리가 구조보다는 접혀짐(folds)에, 선형적이기보다는 더 복잡하고, 변증법적이기보다는 더 순환적이고, 전체주의적(totalising)이기보다는 더 창발적인” 개념을 뜻한다.

²³ 월러스틴은 자본주의 세계체계 내 이해 당사자들 간의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깊은 간극을 메꾸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체계는 폭넓게 공유된 이데올로기 예를 들면 중도적 자유주의)를 통해 근대 세계체계의 정신과 구조가 팽창해 나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 19세기 동안 등장한 3가지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면서, 월러스틴은 어떻게 중도적 자유주의가 19세기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지배이념이자 팽창논리가 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했다(Wallerstein, 2011).

²⁴ 국가 간 체계는 일반적으로 국민국가들의 집합체를 의미하는데, 국민국가란 자신들의 영토 내에서 자주적인 정치체계를 구성하는 것에 그 방점을 두었다. 이런 국민국가는 서유럽에서 발전된 하나의 정치조직체인데, 이런 국민국가들 사이의 집합체가 자본주의 세계체계하에서 특정한 하나의 제도적 틀로 구성되었는데, 월러스틴은 국가 간 체계라 이름 붙였다. 국가 간 체계 이전에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조직체들(예: 세계제국이나 부족 단위의 연합체 등)들과 달리, 자본주의 세계체계는 국가 간 체계를 통해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정치논리를 각 국가에게 이식시킬 수 있었다고 월러스틴은 바라봤다(휴킨즈·월러스틴, 2011: 13). 관련해 체이스 던(Chase-Dunn)은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네트워크와 자본축적과정의 발달에 있어 국가 간 체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가 간 체계는 그 자체로 체계적 자본축적과정과 경쟁적인 상품경제의 기초이다. 따라서 세계

언급한 경제적-이데올로기적-정치적 요소들이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유형유지, 안정성, 역동성, 확장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세계체계는 부분들과 분리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메가아시아를 해석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메가아시아는 새로운 형태의 아시아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신범식(2021: 15)이 주장했듯, 메가아시아는 “아시아 내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들이 신대륙주의나 신해양주의와 같은 지구적 및 지역적 동학을 통하여 상호 연결됨으로써 구성되는 거대한 상호작용의 네트워크”이다. 이럴 경우 메가아시아는 (기존)아시아들과 구분되는 하나의 독립된 형태와 논리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메가아시아는 (기존)의 아시아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실제 아시아 역내 혹은 역외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흐름, “공간과 권력관계”, “의미연관과 담론적 실천”, 그리고 “경험과 제도”와 같은 다양한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메가아시아를 ‘아시아에 대한 아시아’로 인식하게끔 했다(신범식, 2021: 20).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윌러스틴의 부분과 전체의 관계성은 메가아시아의 개념적 특징들을 찾아내는 데 있어 나름의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 도구의 측면으로도 윌러스틴의 세계체계 관점은 메가아시아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윌러스틴의 세계체계적 관점이 16세기 이후 등장한 전지구적인 연결사특히 유럽과 비유럽 사이의 불균등한 상업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혹은 북반구(global north)에 있는 나라와 남반구(global south)에 있는 나라 사이의 불균형한 경제 관계를 해석하는 효과적인 방법론적 틀을 제공하는 것처럼, 메가아시아 개념 역시 21세기 이후 등장한 새로운 아시아를 그려 내는 데 있어 중요한 방법론적 도구가 될 수 있다. 글로벌한 세계 속 아시아의 급증한 지정학적·지정학적 중요성, 아시아 역내 네트워크의 강화 및 통합의 증대, 아시아 내 주요 국가들의 성장 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분명 메가아시아는 하나의 의미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산재되어 있던 아시아 내 다양하고도 복잡한 시간적·공간적 네트워크 및 교류들

시장과 국가체계는 자본주의 발전 및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집합적인 합리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다”(Chase-Dunn, 1997: 146).

의 흔적들을 메가아시아라는 개념 틀에서 새롭게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러스틴의 세계체계 이념을 온전히 메가아시아 개념에 투영시킬 수는 없을 듯하다. 왜냐하면 월러스틴의 세계체계 개념과 메가아시아 관점 사이에는 메꿀 수 없는 뚜렷한 간극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월러스틴의 자본주의 세계체계는 그 자체로 글로벌한 성격을 띤다. 즉 유럽과 비유럽지역을 포괄하는 말 그대로 전 지구적 정치경제 체계이다. 비록 내부의 수많은 하위단위체들이 존재하지만, 세계적 차원에서 근대 세계체계는 단수로 존재하기에, 이는 그 자체로 전 지구적인 자기완결성을 가진다.²⁵ 그에 따라 만약 자본주의 세계체계가 (마치 유기체의 소멸처럼)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는 그 자체로 전혀 없는 전 지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²⁶ 반면 메가아시아는—비록 그 자체로 아시아의 지역구분을 넘어서 광범위한 아시아 전체 영역을 지칭하지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메가아시아를 하나의 지역 단위 체계라고 간주한다면, 다른 여러 지역단위 집합체들(예: 유럽연합, 아프리카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메가아시아와 다른 여러 지역단위 집합체들의 관계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월러스틴의 단일한 자본주의 세계체계 개념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²⁷

²⁵ 그래서 월러스틴은 자신의 세계체계분석을 단일학문적 접근(unidisciplinary approach)이라 불렀다(Wallerstein, 1976: 11).

²⁶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체계는 말 그대로 단일하고도 거대한 체계이기에, 나비효과와도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더욱 직접적이고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관련해 아부루고드(Janet L. Abu-Lughod)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세계체계의 단일성·복잡성을 잘 나타내 준다: “기상체계(weather systems)처럼, 세계체계 내 작은 국지적 조건들은 인접한 상황들과 상호작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렇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결과들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대규모 소란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생채기에 불과할 정도의 결과를 낳는 반면, 상대적으로 소규모 소란이라고 간주되는 것들이 체계의 부분들과 엮여 격렬한 증폭을 일으키기도 한다”(Abu-Lughod, 1989: 369).

²⁷ 이런 관점은 향후 메가아시아와 외부와의 관계라는 또 다른 과제를 우리들에게 선사하기도 한다. 즉 메가아시아 개념의 유지 및 발전에 있어 외부와의 관계(혹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상황 혹은 영향력)를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V. 결론: 새로운 이론적 개념체이자 방법론적 도구로서의 메가아시아

장기적인 관점에서(1970~2016), 아시아의 GDP 및 1인당 GDP의 성장률은 세계 경제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높았고,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세계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에서 40%로 급증했는데, 이는 과거 식민시기 아시아를 생각하면 괄목상대한 경제적 성과다(Nayyar, 2019). 그러나 이런 아시아의 경제적 급성장에 따른 그림자 또한 길게 아시아 전체를 뒤덮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아시아 내 경제 및 사회발전의 양극화일 것이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동남아시아·서아시아 사이의 경제적 차이는 일조일석으로 메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만큼 벌어진 상태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내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엠모트(Emmott, 2009: 8)는 아시아의 경제적 발전이 더욱 진전될수록 아시아는 서구와 대결을 펼칠 단일 연합체로 나아가기보다 더욱 분열된 모습을 자아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미국 혹은 서구권의 몰락, 아시아의 부흥'이라는 과장된 소문에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Krugman, 1994; Pei, 2009; Kurlantzick, 2011). 이런 비관론적·부정적 예상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지속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통합체로 나아가고 있다. 코로나 19의 예기치 못한 등장으로 글로벌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내 경제 회복 및 지역통합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Asian Development Bank, 2021).

분명 아시아 내부의 지역연대가 확장되고 아시아의 부상이 지속되는 한 아시아를 하나의 공통된·통합된 하나의 단위로 보려는 시도들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시아를 하나의 단일하고도 공통된 전체로 파악하려는 아시아에 대한 담론들 또한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작업들 속에서 우리는 메가아시아 논의를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메가아시아는 분명 새로운 아시아에 대한 현실과 미래 아시아에 대한 상상력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동시에 메가아시아는 기존의 아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경험들과 교류사(연결사)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메가아시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하나의 실험적 시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메가아시아라는 개념을 이론적 개념체이자, 방법론적 도구로서 이해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미 이론적 체계이자 방법론적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는 월러스틴의 세계체계 관점을 차용해 보았다.

그렇다면 월러스틴의 세계체계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메가아시아는 새로운 아시아에 대한 하나의 이론적 체계이자 방법론적 도구로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그렇다 혹은 아니다’라고 답을 내리기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 왜냐하면 메가아시아를 하나의 이론적 체계라 결론내리기 위해, 메가아시아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도 발전된 이론적 논의 및 방법론적 구체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메가아시아가 하나의 이론적 체계이자 방법론적 도구라 가정하더라도, 이를 월러스틴이나 다른 여러 학자들의 이론적 관점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다고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메가아시아는 월러스틴이 규정한 근대 자본주의 세계체계라는 방식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한계로 인해, 본 연구는 그 시론적인 측면만을 드러냈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아시아가 지닌 독특한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새롭게 등장한 아시아의 지정학적·지정학적·역사적 형태를 메가아시아라고 명명한 순간부터, 메가아시아는 기존의 아시아 개념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할 운명을 건네받았기 때문이다. 과거 아시아라는 개념이 서구에 의해 주어진 그리고 호명되어진 것이라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종속화된 개념을 뜻한다면, 메가아시아 개념은 적어도 아시아인들에 의해 주체적으로 재창조된 개념일 것이다. 이럴 경우, 메가아시아라는 개념어에는 서구의 지배적인 이념들에 대한 도전적 의미가 들어 있다.

나아가 메가아시아가 아시아인들에 의해 새롭게 규정된 개념인 동시에, 메가아시아라는 새로운 이론적 틀에서 아시아를 새롭게 규정해야 할 요청도 들어 있기에, 이를 단순히 개별 아시아 국가들(혹은 지역들)의 문제로 환원시켜 해석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즉, 서구중심주의적 맥락과 (개별) 주체의 문제를 넘어, 보다 아시아의 본래 모습에 가까운 그리고 보다 더 구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되고 있는 아시아를 해석하는 데 있어, 메가아시아의 정체성 밝히기 작업은 지속적인

로 논의해 나가야 할 주제라 생각한다.

투고일: 2022년 1월 6일 | 심사일: 2022년 5월 31일 | 게재확정일: 2022년 7월 29일

참고문헌

- 김경일. 1998. “지역연구의 정의와 쟁점들.” 김경일 편저.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문화과학사.
- 김숙진. 2016. “아상블라주의 개념과 지리학적 함의.” 『대한지리학회지』 51집 3호, 311-326.
- 김종호. 2021. “남중국해 화교화인 네트워크 속 사람, 자본, 물자의 이동.”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HK+ 메가아시아 사업단, 해양과 메가아시아 2차 워크숍. 서울. 11월.
- 도오루, 야노. “지역연구란 무엇인가?” 김경일 편저.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문화과학사.
- 류성희. 2011. “이념형적 접근에 기초한 막스 베버 ‘국가관’의 이해.” 『인문논총』 27권, 5-51.
- 신범식. 2021. “부상하는 메가아시아: 역사와 개념.” 『아시아리뷰』 11권 2호, 3-34.
- 에노모토 와타루. 2012. “중국인의 해상진출과 해상제국으로서의 중국.” 모모키 시로·야마우치 신지·후지타 가요코·하스다 다카시 저. 최연식 역. 『해역아시아사 연구입문』, 30-38. 민속원.
- 유성희. 2021. “19세기 태평양 세력의 등장과 메가아시아의 부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 메가아시아 사업단, 해양과 메가아시아 2차 워크숍. 서울. 11월.
- 윤상우. 2002.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위기와 재편: 한국과 대만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윤종석·최경희·이주현. 2021.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 메가아시아적 접근의 함의.” 『아시아리뷰』 11권 2호, 57-95.
- 윌러스틴, 이매뉴얼 저. 나종일·백영경 역. 1993. 『역사적 자본주의/자본주의 문명』. 창비.
- _____ 저. 성백용 역. 1994.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 창비.
- _____ 저. 나종일 외 역. 2001. 『근대세계체제 1: 자본주의적 농업과 16세기 유럽 세계경제의 기원』. 까치.

- 이광근. 2020. “세계체계 분석의 형성과 발전: 월러스틴의 지적 여정과 비판에 대한 고찰.” 『현상과 인식』 44권 1호, 181-228.
- 임현진. 2016. 『아시아의 부상: 문명의 전환인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임현진·서문기·윤상우·황석만, 2021. 『글로벌 아시아: 자본주의 발전과 포스트 발전국가의 미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임현진·장진호. 2020. “21세기 문명위기와 세계체계론: 이매뉴얼 월러스틴(I. Wallerstein)의 비교역사적 전망.” 『아시아리뷰』 10권 2호, 3-35.
- 자오팅양 저. 김중섭 역. 2022. 『천하: 세계와 미래에 대한 중국의 철학』. 이음.
- 차크라바티, 디페시(Dipesh Chakrabarty) 저. 김택현·안준범 역. 2014. 『유럽을 지방화하기: 포스트 식민 사상과 역사적 차이』. 그린비.
- 하버마스, 위르겐 저. 장춘익 역. 2006. 『의사소통행위이론 2』. 나남.
- 홉킨즈, 테렌스 K.·이매뉴얼 월러스틴. 2011. “세계체계: 위기는 있는가.” 이매뉴얼 월러스틴·테렌스 K. 홉킨즈 저. 백승욱·김영아 역. 『이행의 시대: 세계체제의 궤적, 1945-2025』, 11-23. 파주: 창작과 비평사.
- Abu-Luhod, Janet L. 1989. *Before European Hegemony: The World System A.D. 1250-135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nievas, Alexander and Kerem Nişancıoğlu. 2017. “Why Europe? Anti-Eurocentric Theory, History, and the Rise of Capitalism.” *Spectrum: Journal of Global Studies* 8(1), 70-98.
- Aronowitz, Stanley. 1981. “A Metatheoretical Critique of Immanuel Wallerstein’s the Modern World System.” *Theory and Society* 10(4), 503-520.
- Arrighi, Giovanni. 2007. *Adam Smith in Beijing: Lineages of the 21st Century*. London: Verso.
- Arrighi, Giovanni, Takeshi Hamashita, and Mark Selden. 2003. “Introduction: The Rise of East Asia in Regional and World Historical Perspective.” In Giovanni Arrighi, Takeshi Hamashita, and Mark Selden, eds. *The Resurgence of East Asia*, 1-16. New York: Routledge.
- Asian Development Bank. 2021. *Asian Economic Integration Report 2021: Making Digital Platforms Work for Asia and the Pacific*. Manila, Philippines: ADB.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674421/asian-economic-integration-report-2021.pdf>(검색일: 2022. 5. 3.).
- Babones, Salvatore. 2015. “What is World-systems Analysis? Distinguishing Theory

- from Perspective.” *Thesis Eleven* 127(1), 3-20.
- Bloch, Ernst. 1991 [1935]. *Heritage of Our Times*. Neville and Stephen Plaice, tran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raudel, Fernand. 1982. *Civilization and Capitalism, 15-18th Century: The Wheels of Commerce, Volume II*. New York: Harper & Row.
- Broeze, Frank. 1989. “Introduction.” In Frank Broeze, ed. *Brides of the Sea: Port Cities of Asia From the 16th-20th Centuries*, 1-28. Honolulu,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 Buzan, Barry and Ole Waever. 2003. *Regions and Powers: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Security*. Cambridge, New York, Melbourne, Madrid, Cape Town, Singapore, Sao Paulo: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meron, Rondo. 1973. “The Logistics of European Economic Growth: A Note on Historical Periodization.”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History* 2(1), 145-148.
- Chang, Kyung-Sup. 2014. “Asianization of Asia: Asia’s Integrative Ascendance through a European Aperture.” *European Societies* 16(3), 337-342.
- Chase-Dunn, Christopher. 1997. “Interstate System and Capitalist World-economy: One Logic or Two.” In George T. Crane and Abba Amawi, eds. *The Theoretical Evolution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144-157.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en, Kuan-Hsing. 2010. *Asia as Method: Toward Deimperialization*. Durham, NC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Chen, Song-Chuan. 2017. *Merchants of War and Peace: British Knowledge of China in the Making of the Opium War*.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Cumings, Bruce. 1984.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dustrial Sectors, Product Cycles, and Political Consequenc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38(1), 1-40.
- Destradi, Sandra. 2010. “Regional Powers and Their Strategies: Empire, Hegemony, and Leadership.”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6(4), 903-930.
- Duara, Presenjit. 2001. “The Discourse of Civilization and Pan-Asianism.” *Journal of World History* 12(1), 99-130.
- _____. 2010. “Asia Redux: Conceptualizing a Region for Our Times.” *The Journal of*

- Asian Studies* 69(4), 963-983.
- _____. 2014. "The Discourse of Civilization and Pan-Asianism." *Journal of World History* 12(1), 99-130.
- Emmott, Bill. 2009. *Rivals: How the Power Struggle between China, India, and Japan Will Shape Our Next Decade*. London: Penguin Books.
- Fenton, William Nelson. 1947. *Area Studies in American Universities*.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 Foster-Carter, Aidan. 1978. "The Modes of Production Controversy." *New Left Review* I (107), 47-77.
- Frey, Marc and Nicola Spakowski. 2016. *Asianisms: Regionalist Interactions and Asian Integration*. Singapore: NUS Press.
- Funabashi, Yoichi. 1993. "The Asianization of Asia." *Foreign Affairs* 72(5), 75-85.
- Goldstone, Jack A. 1996. "Gender, Work, and Culture: Why the Industrial Revolution Came Early to England But Late to China." *Sociological Perspective* 39(1), 1-21.
- Hopkins, Terence K. and Immanuel Wallerstein. 1977. "Patterns of Development of the Modern World-system." *Review* 1(2), 11-45.
- Kimmel, Michael. 1982. "Review on the Modern World System, Volume II." *Theory and Society* 11(2), 244-251.
- Kondratieff, Nikolai. 1984. *The Long Wave Cycle*. New York: Richardson & Snyder.
- Krugman, Paul. 1994.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73(6), 62-78.
- Kurlantzick, Joshua. 2011. "The Asian Century? No Quite Yet." *Current History* 110(732), 26-31.
- Landes, Davis S. 2006. "Why Europe and the West? Why not China?"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20, 3-22.
- Mahbubani, Kishore. 2008. *The New Asian Hemisphere: The Irresistible Shift of Global Power to the East*. New York: Public Affairs.
- Martin, William G. 1994. "The World-Systems Perspective in Perspective: Assessing the Attempt to Move Beyond Nineteenth-Century Eurocentric Conceptions." *Review* 17(2), 145-185.
- Marx, Karl. 1973 [1858]. *Grundrisse*. Martin Nicolaus, trans. London: Penguin Books.
- _____. 1983.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Volume 1*. Edited by Frederick

- Engel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 McMichael, Philip. 1990. “Incorporating Comparison within a World Historical Perspective: An Alternative Comparative Meth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3), 385-397.
- McMichael, Philip. 2000. “World-Systems Analysis, Globalization, and Incorporating comparison.”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VI(3), 68-99.
- Mearsheimer, John. 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Morgenthau, Hans J. 1952. “Area Studies and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Bulletin* 4(4), 647-655.
- Mulakala, Anthea. 2021. “‘The Asian Century’: The Transformational Potential of Asian-Led Development Cooperation.” In Chaturvedi S. et al., eds. *The Palgrave Handbook of Development Cooperation for Achieving the 2030 Agenda*, 519-541. Palgrave Macmillan, Cham.
- Myers, David J. 1991. “Threat Perception and Strategies Response of the Regional Hegemon: A Conceptual Overview.” In David J. Myers, ed. *Regional Hegemons: Threat Perception and Strategic Response*, 1-29. Boulder, CO: Westview.
- Nayyar, Deepak. 2019. *Resurgent Asia: Diversity in Develop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rsons, Talcott. 1966. *Societies: Evolutionary And Comparative Perspectiv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_____. 1991. “Society.” In Charles Camic, ed. *Talcott Parsons: The Early Essays*, 109-122.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ei, Minxin. 2009. “Think Again: Asia’s Rise.”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m/2009/06/21/think-again-asias-rise/>(검색일: 2021. 11. 28.).
- Prys, Miriam. 2010. “Hegemony, Domination, Detachment: Differences in Regional Powerhood.”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12(4), 479-504.
- Research Working Group on Cyclical Rhythms and Secular Trends. 1979. “Cyclical Rhythms an Secular Trends of the Capitalist World-Economy: Some Premises.” *Review* 2(4), 483-500.
- Ru, Sung Hee. 2019. “The Critical Appraisal of Existing Comparison Methods: Bringing

- the Connected Histories into Chinese Stagnation Studies.” *Journal of Asian Sociology* 48(2), 231-261.
- _____. 2020. “Two Theoretical Resources for the Nineteenth Century China’s Incorporation Process: A Strategy for Understanding China’s Capitalist Transition.” 『한국사학회』 54(2), 193-226.
- _____. 2021. “Conceptualizing China’s Tea History in the 19th Century: Incorporation into the Capitalist World-Economy.” *Journal of Agrarian Change* 21(5), 1-19.
- Saaler, Sven and Christopher W. A. Szepilman. 2011. *Pan-Asianism: A Documentary History, Volume 1*. Lanham, MD: Rowan & Littlefield.
- Samaddar, Ranabir. 1999. *The Marginal Nation: Transborder Migration from Bangladesh to India*. New Delhi: Sage.
- Skocpol, Theda. 1977. “Wallerstein’s World Capitalist System: A Theoretical and Historical Critiqu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2(5), 1075-1090.
- Smith, Craig Anthony. 2014. “Constructing Chinese Asianism: Intellectual Writings on East Asian Regionalism (1896-1924).”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Szpilman, Christopher W and Sven Saaler. 2011. “Pan-Asianism as an Ideal of Asian Identity and Solidarity.” *The Asia-Pacific Journal* 9(17), 1-30.
- Tilly, Charles. 1990.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0*. Oxford: Basil Blackwell.
- Wallerstein, Immanuel. 1974. *The Modern World-system I: Capitalist Agriculture and the Origins of the European World-Economy in the Sixteenth Century*. New York: Academic Press.
- _____. 1976. *The Modern World-System*. Text Edition. New York, San Francisco, and London: Academic Press.
- _____. 1980. *The Modern World-System II*.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1989. *The Modern World-System III*. New York: Academic Press.
- _____. 1992. “Geopolitical Strategies of the US in a Post-American World.” *Humboldt Journal of Social Relations* XVIII(1), 217-233.
- _____. 1998. “The Rise and Future Demise of World-Systems Analysis.” *Review* 21(1), 103-112.

- _____. 2011. *The Modern World-System IV*.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2012. "World-systems Analysis as a Knowledge Movement." In Salvatore Babones and Christopher Chase-Dunn, eds. *Routledge Handbook of World-Systems Analysis*, 515-521. Oxford: Routledge.
- Weber, Max. 1922. "Die Objektivität sozialwissenschaftlicher und sozialpolitischer Erkenntnis."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Tübingen: J.C.B. Mohr (Paul Siebeck).
- Weiss, Linda and John H. Hobson. 1995. *States and Economic Development: A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Cambridge, MA: Polity Press.
- Zhang Kyung-sup. 2014. "Asianization of Asia: Asia's Integrative Ascendence through a European Aperture." *European Societies* 16(3), 337-342.

Abstract

Characteristics of the Concept of Mega-Asia Viewed through a Comparison with World-Systems Analysis: Coexistence of a Theoretical System and a Methodological Tool

Sung Hee Ru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dentity of Mega-Asia. Mega-Asia is a theoretical concept that envisions a new and integrated (or connected) Asia, which has recently been discussed by scholars. Given that Mega-Asia has theoretical or methodological strengths while distinguishing itself from existing Asian discourse, this theoretical idea of Mega-Asia may be used continuously in the future. Despite the importance and timeliness of the Mega-Asia concept, several questions arise around Mega-Asia. Among these questions, this study attempts to answer the question of what identity Mega-Asia has. To this end, we assume that Mega Asia ha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a theoretical system and methodological tool, and then we bring an idea of Immanuel Wallerstein's world-systems analysis, which encompass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eoretical system and methodological tool. By explaining world-systems analysis understood as a theoretical system and a methodological tool, we try to explore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features embedded in the concept of Mega-Asia. Although we show some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features of the Mega-Asia concept, we will clarify that this study is preliminary research in revealing the identity of Mega Asia.

Keywords | Mega-Asia, theoretical system, methodological tool, Immanuel Wallerstein, modern world-system